

바른미래 '소멸 위기'... 평화당 '체면치레'... 정의당 '발판 마련'

바른미래 당선 전무... 평화당 단체장 5명·기초의원 9명 배출
정의당, 정당득표 12.77% 제2당... 광주 비례대표 시의원 입성

광주·전남 야 3당 엇갈린 성적표

6·13 지방선거 결과 광주·전남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초라한 성적에 광주와 전남에서 사실상 정치적 기반이 무너졌다는 평가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실망스러운 성적이지만, 전남에서 일부 선전하면서 체면치레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당은 광역·기초의회에 후보들을 당선시키면서 광주와 전남 정치적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광역의원 비례를 선출하는 정당 투표에서도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광주에서 정의당에게 밀리며 '광주 제2당 자리'도 내줬다.

◇바른미래당=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초라한 득표율을 얻는데 그쳤고,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단 한석을 얻지 못했다.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바른미래당이 지역에서는 민주·평화·정의에 밀려 사실상 '4당'으로 전락한 셈이다.

바른미래당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를 냈지만, 전덕영 광주시장 후보와 박매호 전남지사 후보는 각각 5.05%, 3.84%의 득표율을 얻는데 그쳤다.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정의당 나경채 후보(5.99%)에게 밀려 3위를 차지했고, 전남

지사 선거에서는 평화당 민영삼 후보(10.58%), 민주당 이성수 후보(4.90%)에게도 뒤처지면서 4위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다.

광주 동구와 전남 광양과 담양 자치단체장 선거에도 후보가 나섰지만, 3~5%대 득표율에 그쳤다. 광역의원 비례와 기초의원 비례 투표에서도 4~6%대 득표에 그쳤다.

◇민주평화당=광주에서는 자치단체장·광역의원 선거에서 단 한석도 얻지 못하고, 그나마 기초의원 9명을 배출하는데 그쳤다. 광주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선거초반부터 자치단체장·지방의원 선거에 올인하는 분위기가 짙었다. 전남지사 후보였던 민영삼 후보가 10.58%의 득표율을 올렸다. 두 자릿수 득표율이지만 평화당은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광주에서는 동구와 북구, 남구, 광산구 4곳의 자치단체 선거에 후보가 출마했지만,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모두 패했다. 하지만, 동구 김성환 후보가 40%를, 북구 이은방 후보가 22.7%, 광산구 이정현 후보가 15.55%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민주당 돌풍' 속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전남에서는 3석의 자치단체장 선거와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23명, 광역 비례 1명, 기초비례 3명 등 지방의원 27명을 배출하면서 간신히 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보내준 국민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치레는 했다.

◇정의당=광주와 전남에서 선전하며 정치적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의당은 광주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채 후보가 5.99%의 낮은 득표율을 올렸지만, 바른미래당 후보를 앞선 결과를 얻었다. 정당 투표에서는 사실상 민주당에 이어 제2당으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하지만, 기초의회 비

례까지 민주당이 싸늘이 하면서 기초의원 비례 후보는 배출하지 못했고, 지역구 기초의원 1명이 당선됐다.

전남에서는 전남도의원 영암 제2선거구 이보라미 후보가 44.20%를 득표해 전남도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또 광역비례 정당투표에서도 8.70%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최현주 광역비례 후보가 전남도의원의

로 당선됐고, 목포와 영암에서 기초의원 2명도 당선됐다.

한편 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상임선거대책본부장과 바른미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광주시장위원장은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이날 최고위원직과 시장위원장 등 주요 당직에서 사퇴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 27년째 지방의회 독점... 견제는 누가

광주 23석 중 22석·전남 58석 중 54석 차지

광주·전남지역 6·13지방선거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민주당 독점 체제로 꾸려진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가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광주·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23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0석 전체와 비례의원 3석 중 2석을 쓸어 담았다. 남은 비례의원 1석은 10%대 정당 지지율을 기록한 정의당이 차지했다.

또 전남도의회 정원 58명 중 당선인은 민주당은 54명(93%), 민주평화당 2명, 정의당 2명의 분포를 보였다.

이번 광주·전남지역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동구 2개, 서구 4개, 남구 3개, 북구 6개, 광산구 5석 모두 20개 선거구

모두에서 당선됐다.

이로써 광주·전남지역의 지방선거 일당 독점 체제를 27년째, 햇수로 27년째 이어가게 됐다.

시의회는 1991년 초대의회가 출범한 이후 비례대표를 빼면 줄곧 일당 체제를 이어왔다.

초대 의회는 ▲재적 의원 23명 중 19명이 신민당, 4명은 무소속 ▲2대는 26명 중 민주당 25명, 민자당(비례) 1명 ▲3대는 17명 중 국민의회의 16명, 자민련(비례) 1명 ▲4대는 19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18명, 민노당(비례) 1명 ▲5대는 19명 중 민주당 18명, 열린우리당(비례) 1명 ▲6대는 22명 중 민주당 21명, 민노당(비례) 1명 등이다.

7대 의회도 22명 중 새정치민주당이 21명, 통합진보당(비례) 1명으로 특정당이

쓸었다.

전남도의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역구 의원 52명 가운데는 민주당 50명, 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이었으며 비례대표 6명 중에는 민주당 4명, 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이다. 지역구에서 민주당 50명을 제외하고 영암 정의당 이보라미, 진도 평화당 김희동 후보가 각각 당선됐을 뿐이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단체장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기능도 약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당내 경선을 앞둔 일부 후보들이 이용섭 당선인에게 서둘러 줄을 썼는데 이들 후보가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어떻게 이 당선인을 견제할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지역의회가 광역단체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당 보다 인물"... 소통·행정 능력에 점수

전남 단체장 무소속 돌풍 배경은

전남 기초단체장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돌풍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 광양·여수·고흥 등 전남 동부권에서의 바람이 거셴다. 지역 내에서 높은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거센 바람에도 전남 22개 자치단체장 선거 중 5곳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됐다.

무소속 자치단체장은 권오봉 여수시장 당선인, 정현복 광양시장 당선인, 유두석 장성군수 당선인, 정중순 장흥군수 당선인, 박우량 신안군수 당선인 등이다. 이들은 정당 지원없이 민주당 후보 등과 치열한 본선 대결을 벌인 끝에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정현복 광양시장과 유두석 장성군수 등은 현직 시장·군수였다. 점에서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선거가 현역 단체

장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역 민들로부터 민선 6기 성과 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유두석 장성군수는 3선 도전인데다, 선거 막판 터져나온 각종 잡음에도 불구하고 55.9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민주당 윤시석 후보(44.06%)를 제치고 3선에 성공했다.

박우량 신안군수 당선인도 민선 5기 신안군수를 지냈던 만큼 지역 바다 민심과 지지세가 탄탄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권오봉 여수시장 당선인은 전남도 부지사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내면서 인지도를 높인데다, 유권자들이 권 당선인의 '행정 능력'을 높이 평가한 점이 득표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중순 장흥군수 당선인은 4년전 지방선거에 출마해 20%대의 득표율을 올리며 석패했지만, 그동안 지역을 떠나지 않고 '와신상담'하며 바다 민심을 다져온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민심에 이반한 일부 지역의 공천 잡음, 막판 열세·경합 지역에서 구사한 네거티브 전략의 부작용이라는 냉혹한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역대 지방선거에서도 전남은 광주와 달리 무소속 후보들의 당선 이 많았던 곳"이라며 "특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바람은 거셴지만, 일부 지역에서의 민주당 경선 과열 양상, '민주당이 쏘면 된다'에 대한 반발 심리, 후보들의 능력, 후보들이 얼마나 지역민과 교감을 했는지 여부 등에서 당락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간 100주년

나주, 2층 주택, 매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시세 - ~~약 1000만원~~
개인사정상 급매 - 8200만원
- H. 010-6834-7400

"전체"수리 했습니다

